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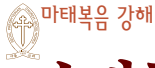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순전한 마음의 제자 바돌로매

(마 10:2-4)

1. 그의 이름

바돌로매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사용했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돌로매라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생소한 이름인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은 바돌로매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 그의 회심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요 1:45).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자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강한 지역적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지역적인 편견의 문제를 뛰어 넘어 너무도 아름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3. 그의 인물

나다나엘을 처음보시고 예수님은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순전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요 1:47)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나다나엘을 처음으로 본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장점을 보시고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4. 그의 사역과 죽음

나다나엘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조용했고 늘 뒤에 있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떠나 소아시아로 갔는데 특별히 부르기아, 라오디게아와 골로새가 있는 히에라폴리스 지역, 페르시아, 알미니아,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갈고리와 같이 생긴 창에 맞아서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5. 그가 주는 교훈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진지했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기도하고 하나님을 목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목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Bartholomew, Disciple with Pure Mind

(Matt. 10:2-4)

1. His name

The meaning of Bartholomew is 'a gift of God'. But the name that he actually used was Nathanael. In the Gospel of John, though the disciple's name Bartholomew did not appear, it was written among twelve disciples. Bartholomew and Nathanael was the same person.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2. His conversion

Nathanael who was evangelized by Philip became Jesus' disciple (John 1:45). When Philip introduced Nathanael to Jesus who came from Nazareth, Nathanael said,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and showed his strong regionalism. However, he overcame the problem of regional prejudice right away, and became Jesus' disciple.

3. His personage

When Jesus saw Nathanael for the first time, He said to him, "Here is a true Israelite who possesses pure mind, in whom there is nothing false" (John 1:47). Jesus did not condemn Bartholomew who saw him and judged Him with his regional prejudice for the first time. All the more, He saw this as an advantage, and paid a compliment to him who had a pure mind.

4. His mission and death

His mission did not appear in the Bible. But according to history, he was calm and ha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In addition, he was a faithful disciple. We also discovered the record in which Nathanael left Israel for Asia Minor, especially Phrygia, Laodicea, the area of Hierapolis including Colossae, Persia, Armenia, and even West India, and there he preached the Gos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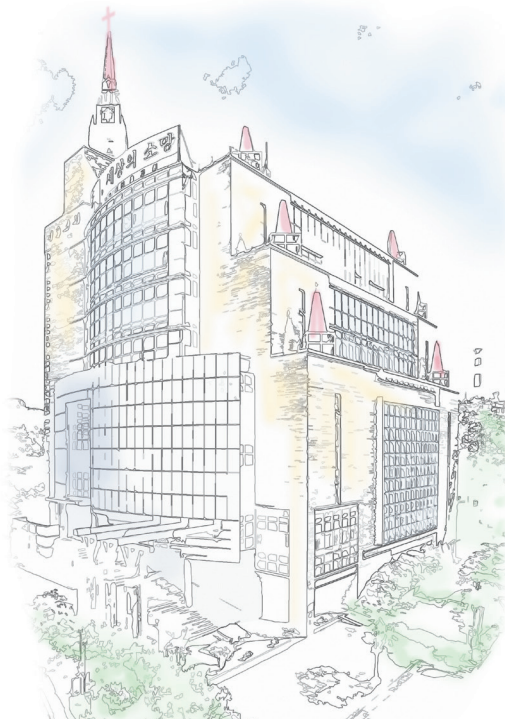
Moreover, it is known that he was pierced with spear like an iron hook; his skin was stripped, and was nailed upside down to a cross.

5. A lesson given to us

First of all, the fact that Nathanael had a regional prejudice was true. Eventually, he overcame the prejudice and he was used for God preciousely. He was always serious and never lost his pure mind. The reason why he had such a pure mind might be that he always lived his life in prayer and meditation.

My beloved Christians,

By living our life in prayer, meditation and cultivating a good mind,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God that will be given to us will bear abundant fruit by thirty times, sixty times, and one hundred tim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3 사명자대회

- 10월 6일(주)~11월 24일(주) 50일간 -
 매주 토요일 기도회: 10월12일~11월16일
 VIP 초대 새생명축제: 11월 15일(금), 17일(주) 양일간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8일(월)~11월 23일(토)

2013 사명자 대회가 10월 6일(주일)~11월 24일(주일) 50일간 열린다.

사명자대회는 교회설립 50일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함을 사명으로 받았다. 해마다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대회를 가짐으로써 교회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주일을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서울교회는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3년 사명자대회를 갖고자 한다.

이번 사명자대회의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말씀을 붙들고 1) 매주 토요일 기도회: 10월12일~11월16일 (6회) 2) VIP 초대 새생명 축제: 11월 15일(금), 17일(주) 양일간 3) 특별새벽 기도회: 11월 18일(월)~11월 23일(토) 의 일정으로 진행 된다.

사명자 대회는 말씀, 기도, 전도하는 대회이다.

- ① 매일 말씀을 읽고
- ② 연속기도 : 50일간 각 교구, 다락방, 개인별 기도 신청 시간에 따라 자율적인 연속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 ③ 다니엘기도 : 모든 성도가 매일 2회 열렬히 기도한다.
- ④ 다락방기도 : 각각 VIP를 품고 다락방 공동으로 기도한다.

사명자 기도제목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 (1) 사명자 대회를 통해 서울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소서.
- (2) 온 가정이 하나님의 동산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 되게 하소서.
- (3) 토요일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 (4) VIP초대 새생명축회에 모든 성도, 가정, 다락방, 부서가 참여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 (5)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영적거목을 배출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⑤ 5,000명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1,000명의 방문자를 품고 기도하며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한다.

또한 올해 VIP 초대 새생명축제는 여성중심 전도 집회로 11월 15일(금), 다음세대 전도축제로 11월 17일(주) 2회에 걸쳐 열린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신 교회관리프로그램 전산실무교육 실시

- 9월 29일(주)~10월 27일(주)-

멀티미디어단(단장 오정수 장로)은 그동안 준비해온 신 교회관리프로그램의 가동(Open 예정 : 11월 초)을 앞두고 각 위원회 소속 부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전산실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본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기 바란다. 교육담당은 최근에 신설된 전산운영지원팀(팀장 김금준 집사)에서 담당한다.

일자(주일)	참석대상 부서(위원회 소속)	담당 운영위원
9/29	교육 1,2,3,4,5국(전산실무자)	김영희 / 윤종덕
10/6	교구	김승록
10/13	기획, 예배, 구제, 재정, 관리, 건축, 스테반회, 권사회, 제직회	강재훈, 최광혁
10/20	전도 / 선교 / 찬양	오윤걸 / 장운기 / 오승민
10/27	당회 소속기관(스테반회, 권사회, 제직회 제외)	최원석
11/3	Open(예정)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4)

(문 103)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 살인한 자였습니다. 이 같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자(왕상11:4, 15:3) 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행13:22)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답)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 그는 많은 죄를 범했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임으로 사울왕에 의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이 학살을 당하게도 했습니다.(삼상 21-22)

후일 다윗은 가드의 아기스 왕을 속이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고는 오히려 유다 네겔과 여라무엘 사람과 겐 사람의 네겔을 쳐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습니다.(삼상27:8-12)

무엇보다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하는 큰 죄를 범한 살인한 자였습니다.(삼하11)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그의 행실을 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한 자라 하신 것은(왕상11:4, 15:3)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깊이 의뢰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의 구원 능력을 완전 신뢰한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시편32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는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깊은 고뇌와 회개를 하였습니다.(삼하12:7-9)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용서와 성결함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끊었던 관계를 다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은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삼상13:14)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종과 같이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 했습니다.(행13:22)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교통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비록 죄에 넘어지고 실패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의뢰하고 받는지를 안 사람입니다. (다음 주 계속)

영동시찰회

10월1일(화) 오전 11시, 베다니교회

제53회 강남노회 정기회를 앞두고 우리교회가 속한 영동시찰회가 베다니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시찰회에는 목사총대로 박노철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김안성 임규현 목사가, 장로총대로는 오정수 노문환 이영기 서문석 홍성주 박정선 최학인 신용식 오광환 최광성 장로가 각각 총대로 참여한다.

2013 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며

2013 사명자대회, 축제로 준비하다.



주동재 집사 (사명자대회 차장)

23년전 교회설립을 앞두고 50일간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었던 그 절실함으로 이제 다시 사명자로 서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013 사명자대회는 열렬한 기도와 담대한 전도를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속에서 베푸시는 5가지 축제의 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저, 기도축제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맘껏 기도할 수 있는 24시간 연속기도의 장을 마련합니다. 개인은 물론 가족단위, 다락방별, 부서별, 교회학교의 반별 모임 기도를 권장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공동기도 제목과 함께 국가와 민족, 교회, VIP(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 후 개인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전도축제입니다. 생명 구원의 전도 한마당이 펼쳐질 것 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친구, 이웃들을 향해 Life 5 전도전략(인사방문→선물방문→나눔방문→소망방문→초대방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정서에 맞는 방문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적으로 5,000명이상의 VIP를 품고 기도하며 1,000명이상이 새생명축제에 참석하며 300명이상이 등록하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새생명축제입니다. 올해 새생명축제는 11월 15일(금)과 17일(주일)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금요일 집회(15일)에는 오전11시부터 여성을 중심으로한 새생명축제가 열리며 주일(17일)에는 각 교회학교의 주일예배시간에 중고등부를 비롯한 다음세대들의 새생명축제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1,2,3부예배시간에는 장년들을 위한 새생명축제가 열리고, 오후 찬양예배시간에는 청장년들을 위한 새생명축제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금요일집회와 찬양예배때에는 특별찬양의 순서를 마련하여 VIP들에게

는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며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말씀의 축제입니다. 대회 기간 중 매주 토요일 특별새벽기도회에는 다음세대들과 온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맘껏 누리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7주간의 기도와 응답’에 참여하면서 생명구원을 통한 VIP들의 결신의 열매를 주님께 감사하며, 온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음과 삶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삶을 주관하시는 손길을 통해 그 풍성한 감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의 동산갈게 되고 각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와 전도의 사명자가 되며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 갈 영적 거목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교단 다체제 운동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2012년 한국장로교총회 창립100주년을 기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한교단다체제를 선언하고 10여 년이 넘도록 기도하며 연구해 온 하나가 되는 운동인 한교단 다체제 헌법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98회 총회(9.9-12)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이 글은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한국장로신문'에 게재한 글이다.

한교단다체제는 초대(원시) 기독교 공동체로의 환원운동이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고린도교회에 바울과, 아볼로과, 게바과, 그리스도파가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아볼로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지만 저주하지 않고 그를 이끌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되게 했다. 서로 다른 신앙과 신학의 양태가 교회를 갈라 놓을 수 없음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한교단다체제는 장로교 교회론에 합당한가?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교회를 공교회 또는 보편교회로 부르는데 이는 택함받은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 한 머리를 의지하며 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며 한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교회를 택함 받은 자의 총수라 했다. 장로교의 어느 교파도 장로교 교회론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교단다체제는 장로교 교회론에 합당한 것이다.

교회사에서 예가 있었나?

칼빈은 루터교와 연합을 시도했고 교회연합을 위해서라면 루비콘강을 10개라도 건너가겠다고 했다. 한국교회 초기에 미국 남·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장로교는 선교활동에서 방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장로교 공의회를 결성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예배와 성례전이 같으면 이미 하나의 교회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한 교단이 아닌가. 한국 장로교회는 각 교단 공회 사도신경, 아다나시우스신경, 칼세돈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고 있다. 왜 다른 교파를 형제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가? 칼빈은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공동체를 교회로 보고 그 공동체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 로마교회를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연합을 위해 극단주의에 빠지

지 않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현실 교회지만 중도의 길을 제시하면서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항상 개혁되고 있는 교회를 추구했다.

한교단다체제의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과거 역사에 대한 참회와 상대편의 장점을 소중히 여겨줌으로 축복받은 한국 장로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고신측), 민주화운동을 한 교회(기장측), 전도를 열심히 한 교회(합동측), 사회봉사를 많이 한 교회(통합측)가 하나가 되면 지상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남북 통일도 교회가 하나 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한교단 다체제의 대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본질적인 것이 같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의 차이로 나뉘어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한교단다체제를 이루면 교회의 대사회정책, 대정부 관계, 남북통일 문제, 선교사 파송, 신학교육 협력, 교회학교 육성, 전도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주님의 소원이며 성령님이 이루실 것이다. 자파의 주장과 공명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심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자세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장자 종회라 자부하는 우리 교단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민에게 전도 - 방글라데시 선교보고 1)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서울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13년 상반기도 이 땅 방글라데시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서울 교회에서 방글라데시로 파송한 '현지인 선교사' 10명에 대한 2013년 상반기 사역 보고합니다.



1) 떼똥똥라 장로교회 (카그라초리 지역, 짜끄마 부족, 보디솏또 목사)

- 불교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라 전도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만 열심을 가지고 모든성도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불교도인 집주인이 예배당을 비워달라고 하여 지금은 목사님 사택 뒤쪽 큰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에 한 성도가 약 60평 땅을 기증하고, 성도들이 벽돌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1000여장의 벽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바메이초리 장로교회 (카그라초리 지역, 짜끄마 부족, 알로론 짜끄마 전도사)

연 초에 불어 닥친 강한 돌풍으로 인해 사택과 학교 그리고 교회당이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가지 은혜로 건물들을 복구하였습니다. 기독교인 교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기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영입했는데 교직원 예배와 주일예배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해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원하셔서 5월 12일 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회



와 학교를 위해 땅을 기증한 프리블 칸디 형제(학교 사무보조원 및 경비원)의 부인 비카스 짜끄마가 유방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 루미반장로교회 (카그라초리 지역, 짜끄마 부족, 슈레스 짜끄마 전도사)

마을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복음을 접한 후 마을 회의에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선포 하였습니다. 지금 스님은 통신과정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깨랄가오장로교회 (디나스뵐 지역, 라이 부족, 슈론존 바로이 전도사)

- 작년 11월에 16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종교생 11명과 전문대생 3명, 어른 2명 입니다. 각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을 하여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했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가정이 다 흔쾌히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부모들이 하는 말은 "우리들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믿어온 힌두교를 버리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당신들이 잘 가르쳐서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입니다. 방과 후 학교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중고대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니아뭏뵐장로교회 (타꿀가온 지역, 라이 부족, 비슈누 뭏또 라이 전도사)

방과 후 학교를 통해 더욱더 복음이 널리 증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교회 옆에 사택을 지어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육군 제3사단 진중세례식

10월 5일(토) 오후 2시
십자군교회에서

우리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부장 이갑진 장로)가 주관하는 육군 제3사단 진중세례식을 10월 5일(토) 오후2시 십자군교회에서 갖는다.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를 위해 기도도 준비하여 세례받는 이들이 말씀안에 거하며 거듭난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 이날 진중세례식을 위해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0일(월) 9차 아시아의 영혼 장신사랑 기도회에 참석한다. 10월2일(수)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Save N.K. 통일대비 남북한 언론전문가 포럼개회사를 한다. 10월5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 설교, 울란바타르 대학교 이사회 설교한다.

- 공연 : 15교구 신모란 집사 10.3(목) 베르디오페라 공연 국립해오름극장
- 득남 : 5교구 이범우 집사, 강민정 집사
- 득녀 : 9교구 장지호 성도 이지미 성도 (장덕 집사 임인자 권사 장남 가정)
- 득녀 : 6교구 엄창호 성도, 김은정 성도

- 주간식당봉사 : 바울선교회(9.29) 엘리야선교회(10.6)
- 금주의 식사 : 영광한 장로 이만순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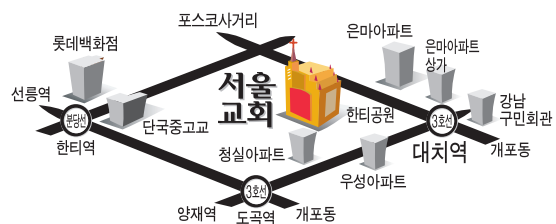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10월 3일(목) 귀국하는 터키성지순례에 참여한 모든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2. 10월 6일(주일) 발대식을 갖는 2013년 사명자대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로 인해 영혼구원의 대잔치가 되도록
3. 10월 5일(토) 3사단 진중세례식을 통해 군선교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전 1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